

지역 매 아리

김제사랑장학재단

고교·대학생 191명 장학증서 수여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15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박준배 이사장을 비롯한 장학재단 임원, 장학생 및 학부모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김제사랑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일반장학생(고등학교생 44명, 대학생 46명) 90명,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생 2명, 이통장자녀 장학생 5명 등 97명에게 장학증서가 전달됐고, 계속장학생 94명을 포함한 191명의 김제사랑장학생에게 3억원 상당의 장학금이 이 달 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고등학교생의 경우, 관내고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연간 120만원이며, 대학생의 경우, 김제지역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연간 300만원이 지급되지만, 김제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적우수 대학 신입생에게는 성적에 따라 연간 300~600만원이 지급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박준배 이사장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긍정적 마인드와 자기주도적 자세로 꿈을 키우고 재능을 계발하여,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줄 아는 자랑스런 김제시민으로 발돋움 하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김제사랑장학재단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보건소, 이동건강체험관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제32회 세계결연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이동건강체험관 운영을 최근 김제 황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7월까지 9개 초등학교에 실시 중이다.

1주간씩 운영되는 이동건강체험관(금연, 음주, 영양)은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생활에 대한 행태 개선 및 올바른 습관형성과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흡연·음주예방, 비만·영양관리, 신체활동실천 등에 관련된 모형전시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알콜관련 모형 및 비만관련 모형, 식생활 지침(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과 흡연자 질병모형, 담배 발암물질 모형, 흡연자·비흡연자 폐모형등과 음주고글 체험 등 모형을 통한 교육으로 거부감 없는 즐거운 시간체험 또한 함께했다.

이번 이동건강체험관 운영으로 다양한 모형을 통한 체험이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강한 삶을 이루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동시기의 바쁜 건강습관이 평생습관으로 자리 매김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길 기대 해본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과 칠곡군은 지난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완주·칠곡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후원 | 농협중앙회 칠곡군지부/전주

# 완주·칠곡 아름다운 동행

## 박성일 완주군수&백선기 칠곡군수, 5년 우정 '눈길'

출신 정당과 지역을 달리하는 동갑내기 호·영남 현역 두 단체장의 5년간 이어온 돈독한 우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직자 출신의 행정전문가인 전북 완주군 박성일 군수와 경북 칠곡군 백선기 군수가 그 주인공. 이들은 지난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완주·칠곡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손을 맞잡고 격이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또 스포츠 및 문화 예술 분야 교류 강화를 위해 생활체육의 대중화를 상징하는 축구공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등 남다른 친분도 과시했다.

두 단체장의 두터운 우정과 동서화합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완주군과 칠곡군은 교류와 협력을 활발하게 이어오며 호·영남 자치단체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완주군과 칠곡군은 1999년 자매결연을 체결했지만 2014년까지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백선기 칠곡군수의 의기투합으로 반전됐다.

2015년 3월 백선기 칠곡군수가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고, 박성일 군수가 흔쾌히 동의하고 칠곡군을 방문해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을 대표하는 축계와 군민의 날에는 사절단이 서로 방문하기로 했다. 또 서울 청계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공동으로 열고 완주군 정책디자인 스톱과 칠곡군 시책개발단은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완주 로컬푸드와 칠곡 인문학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정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민간 교류도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장연합회, 문화원의 순으로 민간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친분을 다지는 행사를 이어왔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도 서로를 이해하며 친분을 쌓고 있어 양 지역 상생협력의 미래도 밝게 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과 칠곡군은 서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서로 가진 장점이 달라 큰 자극과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민간 중심의 실질적 교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과 완주 간 소통과 교류는 영호남 화합은 물론 국민 대통합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며 "단순한 교류를 넘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연을 체결했지만 2014년까지 특별한 교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박성일 완주군수와 백선기 칠곡군수의 의기투합으로 반전됐다.

2015년 3월 백선기 칠곡군수가 박성일 완주군수에게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고, 박성일 군수가 흔쾌히 동의하고 칠곡군을 방문해 머리를 맞댔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을 대표하는 축계와 군민의 날에는 사절단이 서로 방문하기로 했다. 또 서울 청계천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공동으로 열고 완주군 정책디자인 스톱과 칠곡군 시책개발단은 정책 개발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알려진 완주 로컬푸드와 칠곡 인문학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행정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민간 교류도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용소방대연합회, 이장연합회, 문화원의 순으로 민간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친분을 다지는 행사를 이어왔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도 서로를 이해하며 친분을 쌓고 있어 양 지역 상생협력의 미래도 밝게 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과 칠곡군은 서로 비슷한 점도 많지만 서로 가진 장점이 달라 큰 자극과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민간 중심의 실질적 교류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칠곡과 완주 간 소통과 교류는 영호남 화합은 물론 국민 대통합에 큰 몫을 해내고 있다"며 "단순한 교류를 넘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 2019년 전북 우수 브랜드쌀

# 김제시, 3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쾌거'

### '방아짚는날 골드', '상상예찬 골드', '새만금쌀' 선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19년 전북 우수 브랜드쌀 평가결과 이택영 농조합법인의 '방아짚는날 골드', 공덕농협의 '상상예찬 골드', (주)새만금농산의 '새만금쌀'까지 3개 브랜드가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라도에서 추진하는 우수 브랜드쌀 평가는 전북쌀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품질 고급화, 차별화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유통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김제시는 이택영농조합법인의 '방아짚는날 골드', 공덕농협의 '상상예찬 골드', (주)새만금농산의 '새만금쌀' 총 3점을 지난 3월에 추천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4월에 전문기관에서 의뢰하여 품위평가, 잔류농약검사, 전문 패널 식미평가 등 전문기관별 평

가를 실시하고 시군별 현장평가를 통해 계약재배 농가 및 농가관리, 고품질쌀 시설, 품질관리 및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과 서류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품질관리 유도 및 다양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전라북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며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가나안요양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김제가나안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최우수'

###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객관성·현장 중심 평가 강화

김제시 황산면에 위치한 김제가나안요양원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김제가나안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91.2점의 높은 점수로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관찰지표 신실 및 면담지표 확대, 외부평가자 참여제 도입 등 서비스 질 중심의 평가체제로 개편하여 객관성과 현장 중심 평가로 강화하였으며,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영역 48개 지표의 평가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국 4,287개 장기요양기관 중 577개의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김제시에서는 유일하게 김제가나안요양원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최우수기관에

지원되는 가산금과 인증마크(패)를 받았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제가나안요양원 장순주 원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외떨어진 농촌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원거리 출퇴근에도 불철주야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따뜻하게 어르신들을 모셔 온 42명의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가나안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김제가나안복지재단(대표 최형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8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강화

### 오는 7월말까지 점검반 운영

완주군이 고농도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15일 완주군은 오는 7월말까지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역 내 건설사업장과 농촌 지역 및 주거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농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소각행위, 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소각행위이다.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현지 조치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적발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돼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악취유발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